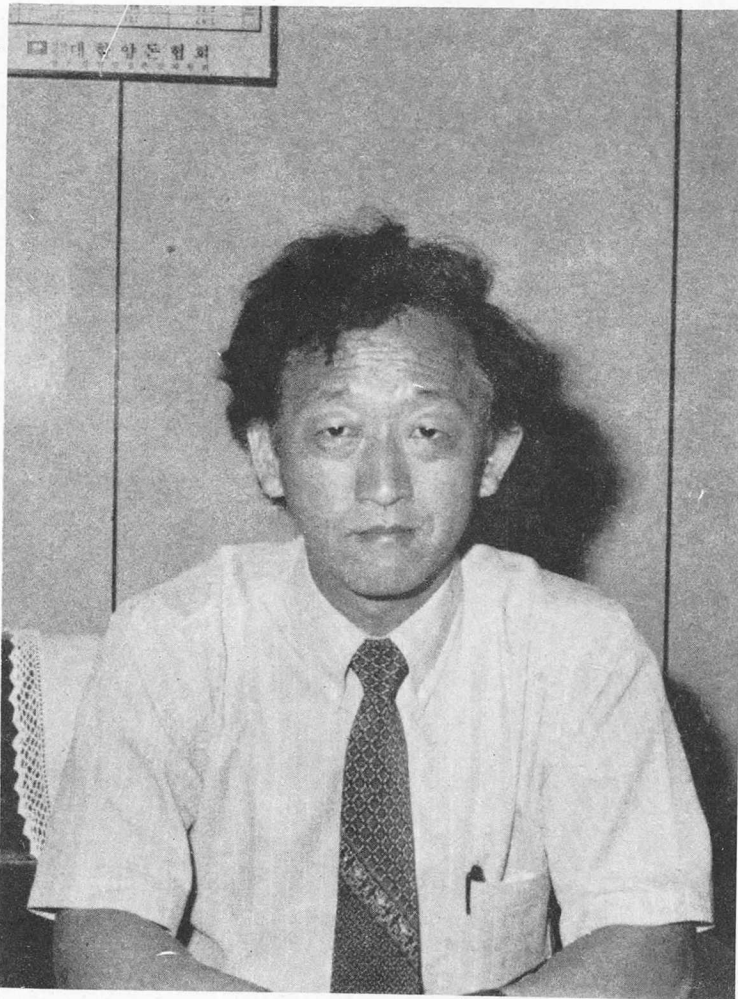


재미 수의학자 주한수박사



**한국 돈콜레라
백멸계획 수립 시골**

경제성분석 기초로

한발 한발 움직여야.

모든 산업경제가 급성장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이때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돼지콜레라를 가지고 있는한 선진국 턱걸이도 못합니다. 줄여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문을 연 주한수박사.

그는 현재 미네소타대 학 수의과대학 대동물임상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83년 가성광견병을 농장에서 쉽게 가려낼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하여 미국 양돈업계의 주목을 끈 바 있고 앞으로 이 도구(진단키트)는 미국 전역에서 실용화될 전망이다.

84년 6월 1일부터 1개월간 우리나라에 머무르는동안 가축위생연구소와 공동으로 돼지콜레라 불활화 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시험을 연구하고 질병세미나를 갖는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도미했다.

1972년에 호주로 건너가 돼지 파보바이러스 연구로 호주 제임스 쿡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귀국하여 1977년부터 가축위생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병원성 번식장해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1980년에 도미하여 현재에 이른 그는 1944년 경주에서 태어났고 1966년에 서울대학교 수 의학과를 졸업했다.

미국은 16년에 걸쳐 1억달러 들여 돈콜레라 완전퇴치

미국은 1961년에 돼지콜레라 박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홍보·백신의 접종·접종중지·혈청검사 결과 감염돈 살처분조치 등의 4 단계조치를 거쳐 마침내 1974. 5. 24 미국 각 주에서 돈콜레라가 없음을 선포한 이후 1976년에 한번 재발하여 완전 종식시켰는데 그동안 콜레라퇴치사업에 총 1억달러의 경비가 투입되었다.

이와같은 질병퇴치사업은 개인 힘만으론 달성할 수 없고 정부 양돈가 학계가 삼위일체가 되고 막대한 예산과 엄밀한 경제적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이룩할 수 있다고 주박사는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돼지콜레라퇴치를 위해선 경제전문가들의 장기적 타당성 조사(백신비용과 노동등)를 근거로 업계가 주도권을 쥐고 한발 한발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돼지 파보바이러스는 미국도 아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구라과는 사양형태가 달라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파보바이러스는 어미의 이행항체로 인해 5개월령까지는 감염이 안되고 5~7개월령 사이에 자연감염되는데 이때가 바로 초회 종부시기여서 자연감염시기와 일치되고 그래서 초산 2산돈에 이 질병이 발생하고 이 병에 걸리면 임신된 돼지가 재발정을 하고 임신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소수분만을 하며 미이라변성태어나 유사산을 유발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에서 돈콜레라 간이진단 키트 개발은 최소 5년이상 걸려

또 가성광견병은 허피스바이러스의 특성을 갖고 있어 감염되면 평생 바이러스를 보유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가성광견병 박멸 시험사업을 각 주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아이오와주는 백신으로 퇴치할 계획을 세웠고 일리노이주에서는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살처분하여 감염돈을 줄이는 계획을 짜 재작년부터 지금까지의 결과를 관찰하여 다음 단계 조치를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미국의 경우 가성광견병이 의심스러운 돼지는 수의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걸린 농장돼지는 도장을 찍어 이 돼지는 도살장에만 팔수 있도록 묶어 놔는데 현재까지 돼지거래는 혈청검사결과 음성이어야 유통된다고 강조하고 일리노이 미네소타주는 1985년 2월21일까지 돼지를 추적하여 감염된 돼지의 농장을 추적 검사하도록 하는 권리사항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질병퇴치는 식별할 수 있는 방법과 어디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와 그 감염 여부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었을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미네소타주엔 현재 215개의 가성광견병 감염농장이 있으며 이외에도 200여 농장이 더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감염원을 알아야 된다고 비유하고 감염여부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퇴치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가성광견병때문에 종돈 돈육 수출이 지금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대만과 일본·싱가폴·호주에서도 가성

돼지전염병 박멸은 질병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과 어디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었을때가능

광견병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가성광견병 증상은 임신대기사에 있는 임신대기돈에서 유산을 일으키고 2~3일 동안 사료를 안 먹으며 분만시 산자 미이라변성태아가 나오고 생존한 자돈도 7일이내에 죽는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

또 백신을 한다해도 감염돈이 되어 전파를 하여서 가성광견병 백신 역할은 임상적증세와 경제적손실을 일시적으로 줄여 준다는 것뿐이며 미국도 20여년 전부터 백신을 접종하여 왔는데 현재는 백신때문에 더 확산되었다는 후회를 한다고 전해주었다.

가성광견병의 농장침투를 막는 단 하나의 방법은 돼지 구입시 감염된 다른 농장의 돼지를 구입하지 않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주박사가 지난 6월 양돈협회와 가축 위생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목적도 가성광견병 간이 진단키트개발 경험을 살려 돼지콜레라에 응용하려는데 있었으며 연구발명의 결과는 최소한 5년이상 걸려야 나오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술회했다.

주박사는 또 미국에서 1년에 10건의 연구계획안을 미농무성·생산자단체·대학·관련업계에 제출하여 평균 4~5건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는데 연구비를 따내는 경쟁이 대단히 심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의 경우 수의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병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있는 것으로 안다하고 어떤 질병이 10년 혹은 20년간 피해를 입힌 액수가 얼마인가와 박멸계획에

투입한 금액 그리고 박멸계획으로 30년 후에 이익을 보는 금액과를 서로 견주어보는 경제성타당분석을 정부가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박멸계획이 1년부터 20년까지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현재 능력이 5번까지만미치면 5년정도 걸려 거기까지 해결하고 다음 번도 단계적으로 능력이 미치는 한도내에서 연구개발하면 불가능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콜레라박멸계획위원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국가의 온 노력이 어우러져 완전퇴치했음을 상기시키고 미국은 현재 가성광견병 하나만 법정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또 농가에게 무조건 백신접종할 것을 권장 하지 않으며 농민에게 접종비용과 노동등을 비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16년걸려 퇴치한 돈콜레라박멸계획을 도입하여 20~30년이 걸리더라도 경제성분석을 토대로 한 돈콜레라박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